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유명 작가 총출동

고흥에서 피어난 열정의 꽃, 분청 미디어아트 참여작가 라인업 공개 Vakki, 윤제호, 오은하, 이명균 등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

오는 9월 고흥에서 열리는 ‘2024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 행사에 국내외 유명한 작가들이 참여한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2024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여작가의 라인업을 공개했다.

미디어아트 행사는 ‘화(火) 화(花) 1250·고흥에서 피어난 열정의 꽃, 분청’을 주제로 해, 오는 9월 1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고흥의 대표 국가 유산인 분청사기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는 야간 행사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미디어 아티스트 빠키(Vakki),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 윤제호, 작곡가 오은하, 영상감독 송지연, 도예 작가 이명균 등이 참여해 각각의 독창적인 시각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오는 9월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리는 ‘2024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 행사에 참여하는 윤제호(왼쪽부터) 작가, 오은하 작곡가, 송지연 감독, 이명균 도예 작가.

고흥군 제공

분청사기를 표현할 예정이다.

빠키(Vakki) 작가는 애플이 유일하게 러브콜한 미디어 아티스트로, 분청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 원색이 강조된 원과 도형, 선을 활용하여 분청사기 제작에 사용되는 물레의 움직임과 움직임적인 패턴을 작품화하여 전통과 현대의 교차점을 선보인다.

윤제호 작가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식을 연출한 아티스트로, ‘화화 1250’을 주제로 분청사적공원 내 위치한 가마터에서 레이저 조명과 직접 작업한 음악을 바탕으로 분청사기를 만든 도공

들의 열정과 긴장감, 염원 등을 표현해 과거의 도공과 현재 빛의 연금술사와의 조우를 시도한다.

오은하 작곡가는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디즈니와 협업하는 국내 대표 작곡가로, ‘분청사기 미디어아트’의 대표 콘텐츠인 ‘파란만장’, ‘화화 1250’의 음악 감독으로 참여해 고흥의 명작인 분청사기를 만들어 낸 도공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희로애락을 잔잔하면서도 역동적인 선율과 리듬으로 작품의 드라마틱함을 전하게 된다.

송지연 감독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

인’의 해외 프로덕션 PD를 역임한 영상 감독으로 분청사기 미디어아트의 전체 지도자로서 특히 ‘화화 1250’의 전체 영상, 정통 타악, 오디오 레이저 비주얼들을 하나의 콘텐츠로 엮어 멀티미디어 융복합 퍼포먼스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명균 도예 작가는 국내외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본인이 직접 제작한 도자기를 전시한 작가로, ‘미디어 고흥 다도’에 고흥의 흙으로 귀얄과 덩범 기법으로 표현된 분청사기 다기(茶器)를 제공해 고흥 분청사기의 매력을 체험객들에게 선사한다.

군 관계자는 “최고의 작가들과 감독이 함께하고 있는 만큼 미디어아트 콘텐츠의 완성도가 매우 높을 것이며,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미디어아트 행사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4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 행사는 오는 9월 13일부터 24일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분청사적공원을 일원에서 첨단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전시와 공연·체험이 펼쳐지는 대규모 실감미디어 융복합 콘텐츠 야간 행사이다.

송민섭 기자

곡성군, 방문 가족심리치료 운영 취약계층 아동·부모 대상

곡성군이 8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가족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심리·정서와 인지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10가구의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검사와 치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2023년부터 가족심리치료를 받아온 기존 대상자와 신규 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족들로 구성됐다.

거리상의 문제로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 선정해 전문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주 2회 상담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문제 행동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통합치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 상담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군은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아동의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나아가 행복한 가정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심리치료가 필요한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조류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영·섬유역본부는 여름철 폭염에 의한 조류발생 증가에 대비해 유역내 5개 광역정수장 및 16개 수탁정수장에서 선제적 조류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본부는 광역정수장 취수원인 주암댐과 장흥댐의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지만 녹조발생에 대비해 자체 전담반을 구성·운영중이며 정수장에서도 정수처리공정을 강화·대응하고 있다.

주요 대응 방안은 △수질감시 강화 △조류유입 사전대응 △정수처리 공정강화 △위기대응 강화 및 적기 정보제공 등이다.

본부는 취수원의 실시간 조류측정장치 활용 및 정수장 원·정수의 일단위 냄새 관능검사를 강화해 조류 유입을 조기에 감지하고 조류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취수구를 변경할 계획이다.

또 조류대응 약품주입설비의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약품의 재고를 사전에 확보해 조류에 의한 냄새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냄새물질 제거를 위한 약품인 분말활성탄을 선제적으로 주입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수장 수질 및 공정운영 현황을 본부-현장간 상시 공유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이상수질에 적극 대응하고 수용가에 수질정보를 적기 제공해 수돗물 신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인호 영·섬유역본부장은 “극한기후에 따른 폭우·폭염 영향으로 조류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시민기록활동가 17명 양성 순천문화재단

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관규)은 지난 20일 순천문화재단 1층 소규모 공연장에서 ‘2024 시민기록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7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시민기록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기록하고 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잊혀가는 순천 생활문화의 기록 및 수집을 위한 구술채록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8주 동안 기록 관리, 인터뷰 기법, 디지털 기록화 및 자료 보존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기록 기술을 익혔다.

수료식에는 순천문화재단 김병준 상임이사가 참석해 수료증을 수여했다.

김 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와 기술의 흐름 속에서 아카이브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풍부한 문화 기록을 남기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료생들은 “순천의 문화 원천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순천의 수해 이주민에 대한 기록을 그림과 글로 남기고 싶다”고 말하는 등 당찬 포부를 밝혔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문화 콘텐츠의 주체로서 시민 기록활동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향후 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한 기록 결과물 수집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계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성군 공무원과 한국농촌지도사회, 귀농귀촌인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장성 황룡강 일원에서 황룡강 가을꽃 축제 준비를 위해 해바라기 꽃을 식재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축제 준비

장성군이 군민과 함께 황룡강 가을꽃 축제 준비를 시작했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국농촌지도사회, 한국생활개선회, 4-에이치(H)연합회, 귀농귀촌인협의회 회원

230여 명과 함께 황룡강 일원에서 해바라기 단지 조성 행사를 가졌다.

올해 해바라기 단지는 힐링허브정원부터 장안교까지 약 1500평(4676㎡) 규모로 조성한다. 황룡강 가을꽃 축제가 열리

는 10월 5~13일 무렵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업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올해 가을 꽃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해바라기를 심었다”며 “전남 대표축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순군, 도시재생 힐링푸드 판매점 입점자 모집

내달 9일 까지 방문·이메일 접수 입주기간 계약일부 2년 이내

화순군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힐링푸드판매점의 2층 입점자를 오는 9월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힐링푸드판매점은 향정지구 청춘신작로에 조성된 상생협력상가(총 4개소) 중 하나로 현재 1층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된 청춘신작로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마을 카페를 운영 중이다.

디저트·베이커리 등 일반카페 업종은 다른 상생협력상가에 기입점 업체가 존재해 모집하지 않고 청춘신작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청장년층을 위한 호프집 업종으로 입점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모집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화순군으로 주소를 둔 화순군민이다.

상가 규모,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 서류를 화순군청 도시과에 방문해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 시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는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방상열 도시과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화순군의 청년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공간 제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